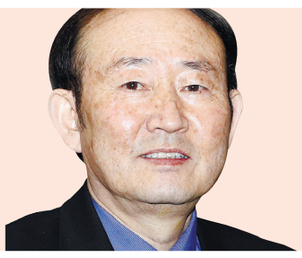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 제언



"근현대 탐구로 현재 대안 모색"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3.1운동은 불교의 이념을 구현한 거국적인 평화시위입니다. 한국불교의 이념인 호국불교, 대승불교를 실천한 것이죠. 이런 이념은 인류의 자유와 평등, 평화를 염원한 보편적 가치와 연결됩니다. 3.1운동이 불교의 가치관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불교계는 미진한 근현대사 탐구를 바탕으로 현대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3.1운동에 담긴 정신이 곧 불교정신과 맞닿아 있어 불교계가 이를 조명하고 선양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사찰별로 각 사찰을 빛낸 스님 발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불교계의 많은 독립운동가 조명이 선양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선양차원을 벗어나 근현대 불교사 전체에 대한 연구 진작, 불교정화운동, 개혁운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불교 근대화와 근현대 고승 탐구 등도 연구 소재로 삼아야 한다. 불교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이 과정 속에서 고승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피며 현재 불교 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지방승가대 교육과정에 근현대사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단과 연구소 등이 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진정한 불교계 3.1운동 조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1만5천여 독립유공자 중 불교인사가 100여 명에 불과한 것은, 그간 자료수집을 방치하고 연구활동을 하지 않아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한 뒤 "만해와 용성 스님 등 일부 스님들에게만 연구가 치우침에 따라 많은 불교계 인사들에 대한 조명이 미처 이뤄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대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높이는 일은 연구자들만의 노력으로 역부족이다. 최근 연구자가 늘어나고 관련 사업도 활성화됐지만 아직도 미진한 수준"이라며 "종단 차원에서 연구기금을 마련하거나 각 사찰 출신 승려들의 업적을 찾아 연고가 있는 학자들이 연구하도록 맡기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3.1운동 조명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자료수집과 인물연구 선행돼야"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



"3.1운동, 항일운동 등 근현대사에서 불교계가 연구할 것은 많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얼마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가' 인데요. 현재 미진한 불교계 연구가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체계적인 자료발굴과 연구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동언 선인역사문화연구소장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의미 깊은 시기에 맞춰 관련 연구 등이 이뤄진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같은 동력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소장은 만해와 용성 스님이 대표적인 불교계 항일인사로 꼽히지만 전국 각지 사찰을 중심으로 전개된 청년승려들의 풀뿌리 항일운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지원과 신진학자 발굴에 불교계가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 소장은 "독립운동유공자 발굴은 자료수집과 인물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당시 활동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재소자 신분카드, 범죄인명부, 당시 기관지, 신문자료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해외에 산재한 관련자료 수집도 절실하다. 연구자의 몫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교계가 △지방사찰의 3.1 만세시위 △사찰간의 연계활동 △불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 등 다양한 근대 항일운동을 조명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 · 천도교 · 기독교의 3.1운동 비교연구와 연계활동 연구, 인물별 상호연계 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특히 한민족독립운동사 내에서 불교계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만큼 꾸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소장은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통치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로 뭉쳐 항거한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바로 3.1운동이다. 무엇보다 불교를 비롯해 천도교와 기독교 등 주요 종교 교단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폭력 평화운동이 추진된 것"이라며 3.1운동의 의미를 짚은 뒤 "불교사상의 근본인 자비에 자유와 평등사상이 흐르고 있어 3.1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계는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인류평등을 추구한 3.1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세미나와 전시가 불교계서 마련됐지만 이 같은 활동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그간 불교계는 근현대사 연구에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 숭유억불로 대변되는 조선시대를 거쳐 왜색불교를 피하지 못한 근대사는 한국불교의 어두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불교 근현대사 전문가들에게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근대불교 강좌 마련 시급"

김경집 진각대 교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부분의 종교계가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선열들의 업적을 기리지만 한국불교계는 연구 분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 근현대사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선양사업이나 독립운동을 펼친 스님들을 조명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죠. 근현대불교 전문강좌를 마련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김경집 진각대 교수는 현재 불교계에 근현대불교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불교계가 전문가 양성에 매진할 것을 이 같이 주문했다.

김 교수는 "동국대의 경우 학부과정에 한국 근대불교와 관련된 강좌가 없다. 결국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으면 근대불교를 배울 기회조차 없다"며 "불교학과 졸업생들이 근대 불교인보다 고대와 중세 인물을 더 잘 아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1년 사이에 불교가 3.1운동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만해와 용성 스님만을 인지하는 현상에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조사되고 추서된 독립유공자들은 신문이나 잡지 등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록이 없으면 정황과 구술을 들어 유공자 지정을 의뢰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교계가 국가기관의 결정적 증거 요구를 맞추려면 스스로 자료를 찾아야 한다. 기존자료 외에 연관성이 있는 추가 자료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3.1운동이 세계사에서 평화 · 자존운동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는 데 공감하면서 3.1정신을 불교계가 '모든 존재의 가치가 소중하다' 는 부처님 가르침에 맞춰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불교계의 3.1운동 참여는 일제라는 적을 격퇴하는 의미보다 민족의 자존감을 일깨워 참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며 "3.1운동에 참여한 만해와 용성 스님 역시 출옥 후 이런 불교의 모습이 사회에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어느 시대이건 대중을 힘들게 하는 요소를 척결하는 것이 불교의 본분이자 파사현정"이라고 불교의 가치를 역설했다.

노덕현 기자

"자발적 관심은 투자로부터"

오경후 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불교계는 그동안 3.1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최근의 연구와 선양사업이 공교롭게도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3.1운동을 조명한 적은 드뭅니다. 관심사로 떠오르지 못했으니까요. 자발적인 관심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됩니다."

오경후 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와 전시들이 시기에 맞아서일 뿐 불교계 내부적으로 3.1운동을 조명한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행사들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시의성에 중심을 두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3.1운동은 불교계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오 연구원은 "불교계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대부분 문중차원에서 이뤄졌을 뿐 조계종 등 각 종단서 공식적으로 관심을 두진 않았다"며 "3.1운동이 과연 불교에게 무엇이었고, 어떤 존재였고, 무엇을 제공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한국불교가 지닌 가치와 정체성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근현대 불교사 조명이 취약한 원인 중 하나로 불교가 꽃을 피운 삼국 · 고려시대와 숭유억불로 대변되는 조선시대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한국불교 연구에서 조선시대는 사상 측면의 연구 등이 미천할 수밖에 없었다. 탄압과 소외로 인해 명맥 유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불교계 관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바둑의 '복기' 의미를 불교계가 이해해 어두운 과거를 조명하고, 학문뿐만이 아닌 현실차원에서 근현대 불교사에 관심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는 "바둑에서 복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놓친 부분을 다잡고, 앞으로의 경기에서 잘하기 위함이다. 근현대 불교사가 어둡고, 부끄러운 민낯이 있다고 해서 묻어두기만 한다면 발전은 없다"면서 "암울한 시대의 역사라도 우리가 분명히 규명해 되풀이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 그때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불교만이 갖고 있는 3.1운동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성민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